

즉시 배포용: 2016년 8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살인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은 장례식장 회사가 정부로부터 장례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가족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살인 희생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를 여의고 나서 뉴욕 주로부터 받는 지원을 간편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극적으로 친인을 잃은 가족들이 장례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순 없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살인 피해자 가족들이 마지막 이별 인사를 마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법에 의하면 장례 비용을 냈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희생자 가족이나 장례식장 소유주가 뉴욕 주 희생자 서비스 사무실(Office of Victim Services, OVS)로부터 비용을 변제받을 자격을 가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보통 개인 소유주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큰 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청구서 제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이 법안(S.7191/A.9762)은 장례식장 사업체가 가족을 대신하여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희생자 서비스 사무실로부터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여 무고한 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장합니다. 어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사무실은 최대 6천 달러의 장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행사가 부담하는 장례식, 묘지, 수의, 성직자 비용, 화환, 사망 증명서, 교회의 예배 비용 및 꽃 등에 대한 비용들을 포함합니다.

법에 따르면 살인 희생자의 가족은 OVS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모든 보험과 장례 비용 보장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대행사에서 501건의 사망 청구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OVS는 180만 달러 이상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범죄의 희생자일 땐 말이죠. 이 변경들은 범죄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그들이 애도하고 있는 동안에 장례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자가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의 부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법으로 정해지도록 서명한 주지사와 Peoples-Stokes 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성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개인 소유나 기업 소유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와 관련된 재정 안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들이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평화의 법안이 법으로 정해지도록 서명하신 Cuomo 주지사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신 공동 후원자인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